인문연구 제94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21. Vol. 94, No. 1, pp.137~174
http://dx.doi.org/10.21211/JHUM.94.5

# 예수와 묵자의 사랑 개념과 실천 비교*

- 아가페와 겸애의 개념과 실천을 중심으로 -

채휘균**

〈차 례〉

1. 서 론
2. 예수의 아가페 개념과 실천
3. 묵자의 겸애와 실천 논리
4. 아가페와 겸애 개념과 실천 비교
5. 결 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첫째,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를 분석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이 예수의 경우 '아가페'였고 묵자는 '겸애'를 사용했기 때문에 원문에 사용된 의미를 분석할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예수와 묵자가 주장한 아가페와 겸애의 실천 방안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5B5A07073956)
** 대구대학교 강사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예수의 아가페는 대상과 관계없이 자기를 희생하여 타인을 유익하게 하는 사랑이다. 한편, 묵자는 세상이 '서로 사랑 하면(兼相愛)'평등하게 된다고 보았다. 겸(兼)은 차별하지 않는 것이고, 상(相)은 상호적 것이다. 애(愛)는 사랑하는 것이다. 즉, 서로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겸애이다.

아가페와 겸애의 실천을 위해서 예수는 아가페를 계명으로 실천할 것을 제시하였고, 묵자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예수의 사랑과 묵자의 겸애가 가지는 의미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인간 역사는 힘을 획득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인과 집단과 국가 간의 대결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만약 인간이 우월한 힘만 추구한다면 갈등과 억압이 인간과 세계를 황폐하기 만들 것이다. 하지만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상호 섬김과 헌신적 사랑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인간 사회와 역사에 희망을 제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예수, 사랑, 아가페, 묵자, 겸애, 평등

## 1. 서론

역사 현실은 우월한 힘을 획득하고 확장하기 위한 대결과 힘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인간 사회에서 힘은 시대마다 달랐지만 근본적인 속성은 사회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사회적 힘을 근간으로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상과 제도와 같은 요소를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힘을 획득하고 확장하기 위한 역사

는 전쟁과 침략과 갈등과 대립의 역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자의 공격성과 폭력성은 당연시 되고, 약자는 패배자가 되고 소외받을 수밖에 없다.

예수와 묵자는 시·공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패권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사랑'을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다. 예수 출생당시 로마황제는 아우구스투스였고, 유대지방은 로마 총독이 통치하였다.[1] 따라서 예수의 시대는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였고, 평화는 로마 군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화였다.

이와 같은 시대에 예수가 말한 '하나님 나라'는 무력으로는 로마에 위협되지 않을 정도로 미약했지만, 그가 보여주었던 '아가페'는 힘에 의한 로마의 평화와 상반되었다. 예수는 무력으로 세계질서를 유지하던 로마와 그 식민지 질서에 '아가페'로 맞서는 입장이었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되는 것은 로마의 무력에 의한 것이었다.

한편 묵자는 약 B.C 470에 출생하여 B.C 390년까지 활동하였다. 묵자는 목수 출신으로 무기를 발명하였던 기술자였고,[2] 초나라와 월나라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초빙을 받았지만 귀족신분을 거절하고 노동자의 검은 옷을 입고 전쟁을 반대하고 평등 사회 건설에 헌신하였다.[3]

묵자가 살던 춘추전국시대는 약육강식의 시대였고,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다. 겸병전쟁이 발생하기 시작한 춘추시기에는 병력의 숫자가 몇 만에 불과하던 것이 전국시기에는 수십만 명이 되었는데 이로 인해 인명손

---

1) 『성경전서』, 「누가복음」 2:1-2절 "그 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2) 한비, 이운구 옮김, 『韓非子』, 「外儲說左」 上, 서울: 한길사, 2012.

3) 기세춘 역저, 『墨子』, 서울: 바이북스, 2009, p. 32.

실과 재물손실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4] 따라서 다양한 사상가들은 혼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상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는데 묵가는 '겸애'를 통하여 시대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물론 묵가의 사상은 힘과 무력으로 천하의 패권을 차지하려는 제후들의 필요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환영받는 사상은 아니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힘을 가지지 못한 약자들과 진정한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환영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예수와 묵자가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은 힘과 무력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이것은 강자와 약자 모두 사랑을 통하여 참된 평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와 묵자의 유사성은 무력을 앞세우고 패권을 차지하려는 현실에 대해 '사랑'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추구한다는 점에 있다.

하지만 예수와 묵자의 '사랑'은 무력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공허하고 이상적인 주장처럼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힘과 무력을 당연시 하고 사랑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인간사회는 더욱 악화되고 현실은 더욱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에서 예수와 묵자의 '아가페'와 '겸애'는 우월한 힘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대결과 갈등의 현실에 대해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모색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예수에 대한 연구는 신학적, 사상적, 역사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고, 묵자에 대한 연구도 다양한 주제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예수와 묵자의 사상에 대해 상호 비교하는 연구는 국내에서 소수에 불과하였다. 강지연은 중국기독교학자 오뢰천의 묵적과 예수에 나타난 묵자사상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의 묵자해석과 기독교의 관련성을 연결하여 고찰하였다.[5] 문익환・기세춘・홍

---

4) 이태승, 『묵가 의리관의 실천적 성격』,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pp. 17-18.

5) 강지연, 「오뢰천의 묵적과 예수 연구-묵자 사상 해석과 기독교의 문제」,

근수의 『예수와 묵자』는 예수와 묵자의 사상을 중심으로 종교적, 사회·운동적 측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상호 주장을 담고 있다.[6]

이와 같이 예수와 묵자에 대한 비교 연구는 국내의 경우 소수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은 달랐지만 힘의 우월성을 지향하는 현실세계에 사랑을 제시하며 진정한 평화를 추구했던 예수와 묵자의 사랑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예수와 묵자의 아가페와 겸애의 개념과 실천을 비교하고 그 가치와 의미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사랑의 개념에 대해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를 분석하고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왜냐하면 사랑의 개념이 예수의 경우 '아가페'였고 묵자의 경우 '겸애'를 사용했기 때문에 각각 용어가 원문에서 사용된 의미를 분석할 때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예수와 묵자가 주장한 아가페와 겸애를 실천하는 방안을 비교 고찰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2. 예수의 아가페 개념과 실천

### 1) 아가페의 개념

사랑이라는 말은 다양한 성격을 뜻하는 개념이다. 사랑에 대해 예수가 말한 아가페는 좋아하는 감정이나 이성을 좋아하는 행위가

---

『철학연구』제124집, 대한철학회논문집, 2012, pp. 1-20.

6) 문익환·기세춘·홍근수, 『예수와 묵자』, 서울: 바이북스, 2009.

아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는 '사랑하다'를 나타내는 동사 아가파오(αγαπαώ)가 63회, 사랑을 나타내는 명사 아가페(Αγαπη)가 90회 사용되었다.[7]

아가페의 개념에 대해 Anders Nygren은 자발적이고, 비동기적이며, 가치에 치우치지 않고, 창조적이며 하나님과 친교를 일으킨다고 설명한다.[8]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아가페의 성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서 원문에서 사용된 아가페의 의미를 분석하여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 한다.

(1) 초월적 사랑

예수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9] 그리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하였다.[10] 여기서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통용되는 상식이다.

그러나 예수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은 사랑이라는 말이지만 그 성격은 다르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아가페는 좋아하는 사

---

7) 김보겸, 『요한복음의 아가페(Αγαπη) 모티브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8, p. 28.

8) Anders Nygren.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pp. 78-83.

9) 『성경전서』, 「마태복음」 5:43-44절.

10) 『성경전서』, 「마태복음」 5:46절.

람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가페는 조건과 대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Anders Nygren이 자발적이고 비동기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이 외적인 요인에 따라 달라지는 사랑이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는 사랑의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 즉,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넘어서 원수도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상과 범위가 확대된다는 뜻이지만 실제는 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조건 없는 사랑이다.

한편 예수는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다.[11] 따라서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는 인륜의 차원을 초월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은 무엇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데, 예수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보다 자신을 더 사랑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은 소중한 것이지만, 인간 본능에서 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부모나 자기 자녀가 아니면 사랑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의 아가페는 대상의 조건을 초월하고, 인간 본능에 기초한 인륜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예수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12]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아니라 불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다 높은 차원의 가치를 따르고자 할 때 인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가장 방해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11) 『성경전서』, 「마태복음」 10:37절.
12) 『성경전서』, 「마태복음」 10:35절.

즉, 가족관계의 한계에 머물게 된다면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를 실천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는 인간관계의 차원과 하나님 나라 차원을 구분하고, 인간관계를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특징은 Anders Nygren의 창조적이며 하나님과 친교를 일으키는 아가페 개념과 연관된다.

예수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13]라고 할 때 쓰인 단어는 헬라어 필로스(φιλος)에서 변화된 필레온(φιλων)이다. 한글 성경에서 예수가 말한 사랑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아가페를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사용된 필레온(φιλων)은 좋아하는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인간적 사랑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인간적 사랑만으로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는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는 아가페를 말하는 것이다.

(2) 계명으로서 사랑

계명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성서에서 제시하는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특별히 십계명은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는 사람사이에 지켜야할 계명이다. 특별히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 유대교는 계명과 율법의 준수여부에 따라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시대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인지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예수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

13) 『성경전서』, 「마태복음」 10:37절.

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였다.[14]

물론 예수가 첫째 계명으로 말한 것은 구약 신명기에 나오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고,[15] 둘째 계명도 레위기에 나오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16] 하지만 예수가 구약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나오는 구절을 첫째와 둘째 되는 계명으로 제시함으로써 사랑이 최고의 계명으로 언급되었고, 십계명을 두 가지 사랑의 계명으로 요약한 대답이 되었다.

이때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사랑하라'는 단어로 쓰인 것은 히브리어 '아하브(אהבה)'이다. 이 아하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도 사용되었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도 사용되었다. 따라서 구약에서 아하브는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일에 구별 없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구약성경에서 아하브(אהבה)의 의미는 다양하고 폭넓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랑에도 사용되었다.[17] 따라서 아하브는 예수가 말한 아가페의 의미와 차이가 있다. 구약에서 아가페와 가까운 개념은 헤세

14) 『성경전서』「마태복음」 22:37-40절. 유진 피터슨은 "네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쐐기 못과 같다."(유진 피터슨, 『메시지 신약』,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1, p. 104.)

15) 『성경전서』, 「신명기」 6:5절.

16) 『성경전서』, 「레위기」 19:18절.

17) 김보겸, 앞의 논문, p. 22.

드(חסד)라는 동사로 고결한 사랑이나 계약에 의한 하나님의 인애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다.[18]

하지만 예수는 구약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브를 헬라어 아가페로 표현함으로써 아하브의 의미를 더욱 고귀한 뜻에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아가페는 구약에서 기록된 사랑보다 더욱 분명한 뜻이 되었다. 즉 아가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또 예수는 요한복음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19]고 하였는데, 이때 사랑은 새로운 계명으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아가페의 성격은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방법에서 알 수 있는데, 예수의 사랑 방법은 제자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희생적 사랑이었다. 예수의 새로운 계명은 바로 이와 동일한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아가페로 예수와 제자들이 연결되고, 동일한 아가페로 제자들과 제자들이 연결되는 것이다.[20] 그러므로 계명으로써 아가페는 인간의 호감과 감정을 기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인간적 차원을 초월하여 자기희생적이며 상대를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며, 예수의 하나님 나라를 가능하게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다.

### (3)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랑

헬라 문화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는 다양하다. '에로스'는

---

18) 김보겸, 위의 논문, p. 23.

19) 『성경전서』, 「요한복음」 13:34절.

20) 김영훈,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가페(Αγαπη)의 교육적 의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p. 35.

이성 간의 육체적 사랑이며, '필리아'는 우정과 같은 차원의 사랑이고,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신적 차원의 사랑이며 가장 고차원적 사랑이다.[21] 이러한 점에서 에로스와 필리아는 인간적 차원의 사랑이라면 아가페는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아가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예수와 그의 제자 베드로의 대화이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랑에 대해 질문하였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22] 이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23] 라고 대답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했던 단어는 아가페의 동사 아가파오(αγαπαώ)였고, 베드로가 대답한 것은 필로스(φιλος)에서 나온 동사 필레오(φιλιώ)였다.[24] 따라서 이때 한글로는 사랑으로 번역되었지만 원문에서 예수와 베드로가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예수가 다시 질문하였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25] 여기에서 쓰인 단어 역시 예수는 아가페(αγαπη)의 의미를 사용했고 베드로는 필레오(φιλιώ)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도 베드로는 아가페가 아니라 필레오로 대답했다. 달리 말하면 예수는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아가페로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지만, 베드로는 인간적인 수준에서

---

21) 김태수, 「아가페(Agape) 리더십: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리더십」, 『복음과 상담』제24권 2호, 2016, p. 122.

22) 『성경전서』, 「요한복음」 21:15절.

23) 『성경전서』, 「요한복음」 21:16절.

24) 김보겸, 앞의 논문, p. 28.

25) 『성경전서』, 「요한복음」 21:16절.

사랑한다고 대답한 것이다.

예수가 세 번째 질문하였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26] 이 때 베드로는 "근심스러운 가운데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27]라고 하였다. 세 번째 예수가 사용한 단어는 앞에 두 번과 달리 인간적 사랑을 말하는 필로스(φιλος)였고 베드로의 대답도 필로스(φιλος)였다. 세 번째는 예수와 베드로가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와 베드로의 문답에서 아가페와 필로스가 구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단어가 실제 성경 원문에서 다른 단어로 쓰였다면 그 의미와 뜻도 다른 것이다. 예수가 강조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필로스(φιλος)가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아가페(αγαπη)였다.

이 같은 차이는 필로스(φιλος)와 아가페(αγαπη)가 다르게 쓰인 부분을 비교해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라는 구절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라는 구절이 있다.[28] 여기서 돈을 사랑할 때 쓰인 사랑이란 단어와 사랑을 따르라고 권유할 때 사용된 단어가 원문에서 다르다. 돈을 사랑할 때 사랑은 필로스(φιλος)와 알귀로스(αργυρος)의 합성어인 필라귀리아(φιλαργυρία)가 쓰였고, 사랑을 따르라고 권유할 때는 아가페(αγαπη)였다. 따라서 돈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아가페를 쓰지 않고, 예수가 요구하는 사랑에는 아가페가 쓰인다.

이와 같이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는 단지 사람이나 물건을 좋아한다는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조건과 차별이 없이 상대를 위해 희

---

26) 『성경전서』, 「요한복음」 21:17절.
27) 『성경전서』, 「요한복음」 21:17절.
28) 『성경전서』, 「디모데전서」 6:10-11절.

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차원의 사랑이다. 따라서 아가페는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가능케 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 2) 아가페의 실천 특징

#### (1) 아가페 실천 방법

신약 고린도전서 13장은 아가페에 대해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29]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가페의 성격과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언[30]이나 천사의 말을 해도 아가페가 없으면 요란한 소리만 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둘째,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의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만한 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아가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셋째,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남을 위해서 불에 뛰어들고 온 몸을 내준다고 해도 아가페가 아니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아가페는 도덕적 행동이나 신비한 능력이나 훌륭한 봉사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이는 예수가 말하는 아가페가 현실사회를 초월하는 가치이며, 하나님 나라 차원의 사랑이라는 점을 나타낸다.

그리고 아가페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오래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31] 라고 하였다. 이것은 아가페의 방법인 동시에 아가페의 성격을 나타낸다. 아가페는 좋아하고 선호하는 감정이나 형제애와 같은 우정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의지와 태도이다.

---

29)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의 사도인 바울이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

30)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양하고 신기한 언어를 말하는 것

31) 『성경전서』, 「고린도전서」 13:4절.

계속해서 아가페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라고 하였다. 역시 아가페는 자기중심적 차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지향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32]고 하였다. 특별히 여기서 아가페는 불의를 싫어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소망하며 기뻐하는 상태임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아가페는 이성간의 사랑과 구별되며, 부모자녀 사이의 본능적인 사랑과도 다른 것이다. 따라서 아가페의 실천은 특별한 신념이나 종교적 헌신을 필요로 한다.

(2) 계명의 실천으로써 아가페

예수가 말한 아가페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으로는 실천하기 어렵다. 그래서 예수는 아가페를 계명으로 말한다. 예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33]고 하였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34]고 하였다. 여기서 사랑으로 사용된 단어는 모두 아가페이다.

따라서 아가페는 계명으로 실천해야 하는 의무이다. 만약 계명이 아니라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죄와 허물이 되기 때문에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아가페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가 아가페를 새 계명이라고 함으로써 아가페

32) 『성경전서』, 「고린도전서」 13:6-7절.
33) 『성경전서』, 「요한복음」 13:34절.
34) 『성경전서』, 「요한복음」 13:35절.

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실천해야하는 것이 되었다. 구약에서 십계명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아가페를 새 계명이라고 함으로써 예수의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가페를 실천하는 일에 달려있게 되었다. 아가페를 실천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또 예수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선언 하고, 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하였다.[35]

이와 같이 사랑이 계명으로 언급되었고, 아가페를 실천함으로써 예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아가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예수, 예수와 제자, 제자와 제자가 서로 아가페로 연결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이다.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36]하였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37] 함으로써 아가페와 계명의 관계를 하나님과 예수, 예수와 제자들, 제자들과 제자들을 연결하였다. 그 이유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38] 고 한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아가페를 통하여 사랑하는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계명으로써 아가페는 개인의 선택이나 선호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연결하고, 예수가 선포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다. 이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

35) 『성경전서』, 「요한복음」 14:21-22절.
36) 『성경전서』, 「요한복음」 15:10절.
37) 『성경전서』, 「요한복음」 15:12절.
38) 『성경전서』, 「요한복음」 15:17절.

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39] 라고 한 것에서도 드러난다.

## 3. 묵자의 겸애와 실천 논리

묵자는 겸애를 통해 난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묵자 사상은 겸애를 포함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墨子十論'을 중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40] 묵자의 겸애는 차별 없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겸애는 차별 없는 사랑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자타 모두의 이익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41] 이러한 점이 의(義)를 중시하고 이(利)를 부정적으로 보는 유가와 다른 점이다.

묵자의 겸애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애(自愛)가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는 상애(相愛)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겸애는 아가페와 유사한 특징이 있지만, 겸애가 서로의 이익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헌신과 희생적 의미를 포함하는 아가페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겸애에 포함된 개념을 차례로 분석하고, 아울러 겸애를 실천하기 위한 묵자의 논리를 검토하고자 한다.

---

39) 『성경전서』, 「요한복음」 17:23절.

40) 묵자 학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상현, 상동, 겸애, 비공, 절용, 절장, 천지, 명귀, 비악, 비명 10편을 말한다.

41) 겸애를 본리주의(本利主義)로 이해하여 개개인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묵자철학의 핵심이라고 본다(민홍석, 「묵자철학의 핵심처는 어디인가」, 『양명학』제34집, 2013, pp. 149-178).

### 1) 겸애의 개념

#### (1) 상애(相愛)

묵자는 천하가 혼란한 이유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不相愛)'이라고 보았다. 여기서 사랑이라고 쓰인 단어는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애(愛)'이다. 그런데 묵자의 경우 어떤 애(愛)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자신만 사랑하는 애(自愛)라면 자기만 유익하게 하고 아버지나 형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즉 상애(相愛)가 아니고 상리(相利)도 아닌 것이다. 마찬가지로 신하가 자기만 사랑하고 임금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자기 이익을 꾀하고 임금을 이롭게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천하가 혼란한 원인이라고 하였다.[42]

따라서 아버지가 자기만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형이 자기만 사랑하고 아우를 사랑하지 않고, 임금이 자기만 사랑하고 신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상애하지 않는 것이고, 서로 유익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가정과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원인이라는 것이다.

묵자는 이와 같이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남을 해치고 도적질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도적은 자기 집안을 사랑하면서도 남의 집안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것을 훔쳐서 자기 집을 이롭게 하고, 남을 해치는 사람은 자기 몸은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해쳐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43] 이와 같이 세상이 혼

---

42) 기세춘, 『墨子』, 「兼愛」 上, 2, 서울: 바이북스, 2009. "子自愛不愛父, 故虧父而自利, 弟自愛不愛兄, 故虧兄而自利, 臣自愛不愛君, 故虧君而自利, 此所謂亂也. 雖父之不慈子, 兄之不慈弟, 君之不慈臣, 此亦天下之所謂亂也."

43) 기세춘, 『墨子』, 「兼愛」 上,2: 雖至天下之爲盜賊者亦然, 盜愛其室不愛其異

란한 근본 원인은 자기를 사랑할 줄만 알고 서로 상애(相愛)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서로 다른 가문을 잘못되게 하고 자기 가문을 이롭게 하며,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자기 나라를 이롭게 하는 것에도 나타난다. 결국 혼란은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나라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묵자는 인간과 인간, 가문과 가문, 나라와 나라가 결국 상애(相愛)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과 어지러운 일이 발생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묵자는 자기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사랑하는 상애(相愛)와 일방적 사랑이 아니라 상호적 사랑을 통해서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된다고 보았다.

묵자 시대에 주요 관계는 개인 차원에서 부모, 형제, 군신관계이고, 집단적으로는 집안과 나라였기 때문에 남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집안이나 국가를 자기 집안과 자기 국가처럼 사랑함으로써 묵자는 혼란한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천하가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면 다스려지고, 서로 차별하고 미워하면 어지러워지기 때문에 묵자는 서로 사랑하라고 한다.[44] 여기에서 묵자의 사랑은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행위가 아니라 자타를 동등하게 사랑하고 자타 모두가 이익을 얻게 되는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의 본능은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자타를 동등하게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을 극복하고 상애가 모두에게 진정한 유익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묵자의 겸애는 본능 감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적 이해가 필요하다.

---

室, 故竊異室以利其室, 賊愛其身不愛人, 故賊人以利其身, 此何也? 皆起不相愛.

44) 『墨子』, 「兼愛」 上, 3: 故天下兼相愛則治, 交相惡則亂, 故子墨子曰: "不可以不勸愛人"者, 此也.

(2) 겸애(兼愛)

겸애는 차별하지 않는 평등한 사랑이다. 묵자는 사람들이 군대의 칼과 독약과 물불을 이용하여 서로 해치는 것이 천하의 큰 폐해라고 보았다.[45] 이러한 원인이 생기는 이유는 남을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해치는 데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것은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하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묵자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차별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천하에 큰 해독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묵자는 차별을 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평등하게 위한다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른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자기 가문을 동원해서 다른 가문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남을 위함이 자기를 위함과 같기 때문이다.[46]

그러므로 서로 유익하기 위해서는 겸애(兼愛)를 할 때, 서로 유익하게 되는 교리(交利)가 생긴다. 이와 같이 천하에 남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다. 서로 평등하게 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하의 큰 유익이기 때문에 묵자는 평등이 옳은 것이라고 하였다.[47]

(3) 겸상애(兼相愛)

묵자의 겸애는 사실상 겸상애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즉, 겸

---

45) 『墨子』, 「兼愛」 下, 1: 此又天下之害也. 又與今人之賤人, 執其兵刃毒藥水火, 以交相虧賊, 此又天下之害也.

46) 『墨子』, 「兼愛」 下, 1: 爲彼猶爲己也.

47) 『墨子』, 「兼愛」 下, 2: 是故子墨子曰:"兼是也.

애와 상애는 평등하고 상호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겸상애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한 개념이다. 묵자는 천하의 해로움은 나라끼리 서로 침공하고, 가문끼리 서로 빼앗고, 사람끼리 서로 해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은혜롭고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과 아우가 서로 화목하고 고르지 못한 것이라고 하였다.[48]

그런데 위와 같이 세상에 해로움이 생기는 원인을 묵자는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不相愛)' 때문에 발생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사랑이나 차별적 사랑으로는 세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 본능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인간은 차별적인 사랑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묵자가 말하는 사랑은 자연적인 인간 본능을 극복하고 겸상애를 지향하는 것이다.

대부분 제후들은 자기 나라만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차별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자기 가문만 사랑하고 남의 가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남의 가문을 빼앗고 차별하는 것이다. 또 개인은 오직 자신만을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을 해치고 차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기 때문에 서로 전쟁하고, 서로 빼앗으려고 한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차별함으로 은혜롭고 충직하지 못하고, 부자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애롭고 효성스럽지 못하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으므로 화목하지 못한 것이다.

이와 같이 천하 사람이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차별한다면 강한 자는 반드시 약한 자를 힘으로 누르고, 부한 자는 반드시 가난한 자를 모멸하고, 고귀한 자는 천한 자를 업신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반드시 어리석은 자를 속일 것이다. 무릇 천하의 재앙과 찬

48) 『墨子』, 「兼愛」 中, 1: 天下之害何也? 子墨子言曰: "今若國之與國之相攻, 家之與家之相篡, 人之與人之相賊, 君臣不惠忠, 父子不慈孝, 兄弟不和調, 此則天下之害也.

탈과 원망과 한탄이 일어나는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차별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다.[49]

그래서 묵자는 이와 같은 현실을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는 겸상애(兼相愛)를 통해 서로 유익하게 하는 법도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남의 나라를 자기 나라와 같이 생각하여 차별하지 않고, 남의 가문을 자기 가문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 몸같이 생각하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천하 인민이 모두 사랑하므로 평등하게 되고, 천하 인민이 모두 서로 사랑하므로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억누르지 않고, 다수는 소수를 겁탈하지 않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능멸하지 않고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고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은 자를 속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50]

### 2) 겸애의 실천 논리

#### (1) 겸애 실천의 유익

묵자가 겸애를 주장할 때, 사람들은 겸애가 좋지만 행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서 겸애를 수용하지 않고 비판하였다. 이같이 겸애가 어려운 이유는 인간 본능이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친구를 위할 수 없고, 자신의 부모를 위하는 것처럼 친구의 부모를 모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인간의 본능 차원에서 당연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묵자는 만약 그와 같이 생각한다면 친구가 굶주려도 먹여주지 않고, 헐벗어도 입혀주지 않고, 병들어도 돌보지

---

49) 『墨子』, 「兼愛」 中, 1: 天下之人皆不相愛, 強必執弱, 富必侮貧, 貴必敖賤, 詐必欺愚. 凡天下禍篡怨恨, 其所以起者, 以不相愛生也.

50) 『墨子』, 「兼愛」 中, 2.

않고, 죽어도 장사 지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51] 즉 인간 본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고 한다면 인간 삶은 더 이상 개선될 가능성이 없게 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겸애를 따르면 친구를 자기 몸과 같이 여기고, 친구의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대하게 된다. 주리면 먹여주고, 추위에 떨면 입혀주고 병들면 보살펴주고, 죽으면 장사 지내줄 것이라고 하였다.[52]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어떤 사람이 전쟁터에 나가거나 명령을 받고 먼 곳으로 갈 때 과연 누구의 주장을 따라 행동하고 어떤 입장을 고려하여 가족을 맡기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묵자는 당연히 겸애를 주장하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하여 가족을 맡기려고 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겸애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도 겸애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 가족을 맡기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53]

즉, 겸애가 어렵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겸애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따른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겸애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이기적 본능에 따라 생각하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겸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겸애가 인간의 본능은 아니지만 결국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사람들이 겸애를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다.

(2) 겸애를 실천하는 왕

겸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개인은 겸애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해도 겸애를 행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겸애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묵자

51) 『墨子』, 「兼愛」 下, 4.
52) 『墨子』, 「兼愛」 下, 4: 飢則食之, 寒則衣之, 疾病侍養之, 死喪葬埋之.
53) 『墨子』, 「兼愛」 下, 4.

의 반론은 많은 백성들은 겸애를 실천하는 왕을 따르고자 하기 때문에 겸애를 행하는 왕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만약 한 임금은 겸애를 행하고, 다른 임금은 차별을 행한다고 할 때, 차별 하는 임금은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백성들이 굶주려도 먹이지 않고, 헐벗어도 옷을 입혀주지 않고, 병들어도 돌보지 않고, 죽어도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평등한 겸애를 행하는 임금은 자기 몸과 같이 백성들의 몸을 생각하고 굶주리면 먹여주고, 헐벗으면 입혀주고, 병이 들면 살펴주고, 죽으면 장례를 치러 줄 것이다.[54]

묵자는 위의 두 임금을 비교하여 과연 백성들이 누구를 따르겠는가? 비록 어리석은 필부나 평등을 비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등을 주장하는 임금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즉 평등을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평등한 임금이 있으면 그를 따르기 때문에 왕도 겸애를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왕이 겸애를 실천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겸애를 행하는 왕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득하는 것이다.

### (3) 성인이 실천한 겸애

사람들은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마치 태산을 끼고 장강이나 황하를 건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55] 이에 대한 묵자의 논리는 태산을 옆구리에 끼고 강을 건넌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지만, 겸상애(兼相愛)와 교상리(交相利)는 옛날 성인들이 이미 실행한 것이라고 하였다. 즉, 이미 앞선 성인들이 실천 했던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반론이다.

---

54) 『墨子』, 「兼愛」 下, 5.
55) 『墨子』, 「兼愛」 下, 6.

묵자는 "문왕은 해와 달과 같이 혼연히 비추어 천하사방과 서방까지 빛났다"[56]고 하며 문왕이 천하를 두루 평등하게 사랑한 것을 해와 달이 천하를 평등하게 비추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겸애도 문왕에게서 본받은 것이라고 하였다. 또 우임금이 묘족을 정벌한 것도 천하의 이익을 위하고 천하의 재해를 없애고자 한 것이었고, 탕임금이 천자의 존귀한 몸으로 백성을 위하여 희생을 꺼리지 않았던 것도 평등한 사랑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57]

그러나 여전히 겸애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묵자는 효자를 통해서 겸애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즉 효자라면 다른 사람이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기를 바란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도록 하는 방법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사랑하고 이롭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았다. 이 말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받고 남을 미워하는 자는 미움을 받는 원리이다.[58] 따라서 먼저 겸애를 행하면 다른 사람도 겸애를 행하기 때문에 겸애는 실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묵자는 세상은 바꿀 수가 없어도 사람의 습속은 바꿀 수가 있다고 보았다. 사람은 윗사람이 지향하는 것을 따르기 때문에 윗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움터에 나가기도 하고, 몸을 날씬하게 하기 위하여 음식을 절제하고, 윗사람이 검소한 옷을 좋아하면 아랫사람이 검소하게 입는다는 것이다.[59]

따라서 평등한 사랑(兼相愛)과 서로 이롭게 하는 것(交相利)은 모두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실천이 가능하다는 것이 묵자의 주장이다. 진실로 임금이 그것을 좋아하고 권면하고 형벌을 두렵게

---

56) 『墨子』, 「兼愛」 下, 6: 泰誓曰 文王若日若月, 乍照光於四方於西土.
57) 『墨子』, 「兼愛」 下, 6.
58) 『墨子』, 「兼愛」 下, 7: 即此言愛人者必見愛也, 而惡人者必見惡也.
59) 『墨子』, 「兼愛」 下, 8.

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서로 사랑하고 유익하게 하는 도리를 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평등을 행하면 임금은 은혜롭고, 신하는 충직하며, 어버이는 자애롭고, 자식은 효도하며,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할 것이다. 그러므로 군주는 마땅히 평등의 도를 따라 행해야 한다. 이것이 성왕의 도리이며 만민에게 이로운 길이라고 하였다.[60]

즉 임금에서부터 일반 백성에게 까지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유익이 된다는 사실을 설득함으로써 겸애를 좋아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한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묵자의 실천논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 아니라 이성적인 설득을 통해서 납득시키는 방법이다.

### 4) 겸애의 실천은 하늘의 뜻

묵자는 겸애를 행하는 것이 모두의 유익을 위한 것이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묵자는 겸애를 행하는 것이 '하늘의 뜻(天志)'이라고 연결한다. 묵자에게서 하늘은 천하 인민을 평등하게 비추어 주고, 먹여주며,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자는 재앙을 받게 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의로운 정치이며,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묵자는 하늘에 신성을 부여하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보았다.[61]

또 묵자는 하늘(天)이 천하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만물이 자라고

---

60) 『墨子』, 「兼愛」 下, 9: 故兼者聖王之道, 王公大人之所以安也, 萬民衣食之所以足也. 故君子莫若審兼而務行之. 爲人君必惠, 爲人臣必忠, 爲人父必慈, 爲人子必孝, 爲人兄必友, 爲人弟必悌. 故君子莫若欲爲惠君、忠臣、慈父、孝子、友兄、悌弟, 當若兼之, 不可不行也, 此聖王之道, 而萬民之大利也.

61) 『墨子』, 「天志」 上, 5, 6.

이롭게 하고, 일월성신을 주관하고 밝게 비추고 사시(四時)를 정하고 춘하추동의 질서를 세운다고 하였다.[62] 따라서 묵자에게 하늘(天)은 단지 자연이 아니라 우주만물을 주관하는 신적 존재이 다. 따라서 하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의(義)라고 주장한다.

> 하늘은 무엇을 하고자 하며,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늘은 의(義)를 행하고자 하며 불의(不義)를 싫어한다. 그러므로 천하백성들로 하여금 의를 따르게 함으로써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 하늘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하늘 역시 원하는 일을 해준다…또 하늘이 의를 바라고 불의를 싫어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천하에 의가 있으면 살고, 의가 없으면 죽으며, 의가 있으면 부해지고 의가 없으면 가난해지며, 의가 있으면 다스려지고 의가 없으면 혼란해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63]

따라서 묵자는 겸애를 실천해야 하는 근거를 외적 대상으로 만물을 주관하는 하늘로 설정하고 겸애는 하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겸애는 의와 연결되고 의는 하늘이 하고자 하는 것이 된다. 그리고 하늘이 원하는 의를 행하면 부유하게 되고, 다스려지기 때문에 모두가 유익함을 얻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점에서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실천의 정당성을 부여하였다.

---

62) 『墨子』, 「天志」 中, 4.

63) 『墨子』, 「天志」 上, 2: 然則天亦何欲何惡? 天欲義而惡不義. 然則率天下之百姓以從事於義, 則我乃為天之所欲也. 我為天之所欲, 天亦為我所欲…然則何以知天之欲義而惡不義? 曰天下有義則生, 無義則死; 有義則富, 無義則貧; 有義則治, 無義則亂. 然則天欲其生而惡其死, 欲其富而惡其貧, 欲其治而惡其亂, 此我所以知天欲義 而惡不義也.

## 4. 아가페와 겸애 개념과 실천 비교

### 1) 아가페와 겸애 개념

예수가 주장했던 아가페와 묵자가 주장했던 겸애는 힘과 무력을 통해 패권을 지향하는 당대 현실 문제를 사랑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아가페와 겸애는 모두 단순히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는 수준이 아니라 상식적인 관계를 초월하는 사랑이다.

예수의 아가페는 현실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형제애나 우정을 초월하는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차원의 사랑이다. 심지어 예수는 부모나 형제보다 예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부모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의 아가페는 현실 차원을 초월하는 사랑을 요구한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식적이고 인간적인 사랑만으로는 예수가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가 패권을 장악하고 무력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현실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좋아하고 감정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사랑은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랑은 현실 질서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사랑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사랑은 현실 질서를 초월하는 아가페였고, 이를 통해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자 했던 것이다.

묵자는 겸애(兼愛)와 자애(自愛)를 구별한다. 자애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고,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애는 인간 본능이고 현실적 사랑이다. 묵자는 자애(自愛)에서 세상 혼란 원인이 생긴다고 보았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 가족과 자기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침범하고 공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겸애 역시 현실을 초

월하는 사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아가페는 차별 없는 사랑이다. 예수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였다.[64] 이것은 이웃과 원수를 차별하지 않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다. 만약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한다면 아가페가 아니기 때문이다.

묵자의 겸애(兼愛) 역시 평등하고 차별 없는 태도를 지향한다. 겸애에서 겸(兼)은 차별 없는 평등이다. 묵자는 세상 혼란 원인이 타인을 미워하고 해치는 것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이것은 서로 차별하는 것에서 생기기 때문에 묵자는 서로 차별하는 것을 비판하여 차별하는 사람들을 천하에 해독을 끼치는 자들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묵자는 차별을 평등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다른 나라를 자기 나라처럼 평등하게 생각한다면 다른 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가문을 자기 가문처럼 생각한다면 결코 다른 가문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결국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65]

그러므로 묵자는 천하에 이로움이 생기는 것은 겸애(兼愛)와 더불어 교리(交利)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남을 이롭게 하고 사랑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평등이기 때문에 서로를 평등하게 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천하의 큰 이로움이 된다는 것이다.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현실적 차원을 초월하고 평등한 사랑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예수의 아가페는 더욱 인내와 희생과 헌신이 강조된다. 때로 아가페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희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아가페는 "오래 참고, 온

64) 『성경전서』, 「마태복음」 5:43-44절.
65) 기세춘, 『墨子』, 「兼愛」 下, 1: 爲彼猶爲己也.

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66]라고 하였다. 아가페는 무엇보다 타인을 위해 인내하고 참는 일이다.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다.

또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67]라고 하였다. 이때 아가페는 자기중심적 차원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지향한다. 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68]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예수의 사랑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소망하며 신에 대한 믿음과 헌신과 인내라는 것이 나타난다. 그러나 묵자의 겸애는 교리와 연결되는 개념으로 상호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점에서 겸애에 비해서 아가페는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포함하는 사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아가페와 겸애의 실천 의미

#### (1)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실천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실제 현실에서 실천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 이유는 기존 사회가 사랑과 겸애를 기반으로 하지 않고 힘의 우위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현실 질서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

66) 『성경전서』, 「고린도전서」 13:4절.
67) 『성경전서』, 「고린도전서」 13:5절.
68) 『성경전서』, 「고린도전서」 13:6-7절.

다. 특히 예수의 시대에는 로마의 힘이 질서였고 그 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평화였다. 반면 묵자의 춘추전국 시대는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힘으로 경쟁하는 시대였다. 이와 같이 서로 시대상황은 달랐지만 각각 시대를 지배하는 가치는 개인이나 국가 모두 힘과 무력을 바탕으로 우월한 지위를 추구하는 시대였다. 따라서 아가페와 겸애는 필연적으로 힘의 우월을 추구하는 기존질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현실적인 이유로 외면받기 쉬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예수는 기존 종교체제를 유지하는 종교지도자들과 기존 종교질서를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신성 모독으로 배척받았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이유는 그가 주장하는 아가페가 기존 사회와 종교질서를 위협하고 기득권 유지에 방해되기 때문이었다. 묵자의 겸애 역시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 받았는데, 무엇보다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예수와 묵자가 이와 같은 상황에도 사랑과 겸애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예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이었고, 묵자의 겸애가 세상의 혼란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⑵ 계명의 실천으로써 아가페

예수의 시대는 유대교가 지배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예수의 아가페는 유대교 전통과 무관할 수가 없었다. 예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의 율법과 계명을 지키려는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예수가 아가페 실천을 주장할 때 유대교의 율법을 통하여 아가페를 실천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더구나 아가페는 단지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내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아가페는 논리적인 설득

을 넘어 율법을 통해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는 계명으로 아가페를 실천하라고 하였다. 마태복음에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였다.

예수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였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예수가 사랑을 계명이라고 함으로써 선택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실천해야하는 의무가 된 것이다.

더구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함으로써 실천은 더욱 강조되었다. 그리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의 계명이 되었다. 따라서 예수에게 사랑의 실천은 인간의 양심이나 도덕적 덕목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신에 대한 헌신과 의무로써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⑶ 겸애의 실천 논리

묵자는 겸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겸애가 좋은 것이지만 실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둘째, 겸애를 따르는 개인은 가능하지만 겸애를 따르는 왕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였다. 셋째, 겸애는 어질고 의로운 것이

지만 실행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반대 논리에 대해서 묵자는 각각의 논리에 대한 반박하고 겸애를 실천할 수 있다고 설득하였다.

첫째, 겸애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만약 겸애를 따르면 친구를 자기 몸과 같이 생각하고, 친구의 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대하게 된다. 이 경우 전쟁터에 나가거나 왕의 명령으로 멀리 출타할 때 겸애가 어렵다고 하는 사람도 겸애를 따르는 이웃에게 가족을 맡기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하였다.

둘째, 겸애를 따르는 왕을 세우기 어렵다고 하지만, 사람들은 겸애를 실천하는 왕을 따르고, 차별 하는 왕을 따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백성들을 돌보는 왕을 따르고, 백성들이 헐벗고 굶주려도 돌보지 않는 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겸애를 반대하는 사람도 겸애를 실천하는 왕을 따르기 때문에 겸애를 행하는 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셋째,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산을 옆구리에 끼고 강을 건너는 것처럼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겸애는 이미 그것을 앞서 실천한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넷째, 마지막으로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 묵자의 천에 대한 입장은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절대적이며, 신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다. 따라서 묵자는 겸애의 실천이 어렵다고 하지만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며, 결국 하늘의 뜻이라고 하며 실천을 정당화하였다.

⑷ 예수와 묵자의 실천 방법

예수와 묵자의 실천을 비교할 때 차이점은 그들이 살았던 시대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수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대교가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던 종교적 사회였기 때문에 실천을 위해 논리적 설득이나 권유보다는 계명으로 실천을 촉구하였다. 하지만 묵자가 활동했던 춘추전국 시대는 백가쟁명(百家爭鳴)의 시대이다. 즉, 자신의 주장을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도록 설득해야 하는 시대이다. 따라서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도록 다른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통해 겸애를 실천하도록 하였다.

실천을 촉구하는 방법의 차이는 예수와 묵자가 가지는 권위의 특징에서도 기인한다. 즉, 예수의 경우 스스로 신의 아들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서 권위를 가지고 실천을 명령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묵자의 경우 많은 사상가중 한사람으로 인간적 차원에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와 묵자가 실천을 촉구하는 방법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예수와 묵자가 아가페와 겸애를 실천을 신적 존재와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비슷하다. 예수의 경우는 아가페와 하나님과 예수와 제자들을 연결한다고 하였고, 묵자는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실천의 정당성을 외적인 절대적인 존재로부터 부여하려고 하였다.

## 5. 결론

인간의 역사는 힘을 가진 집단이 우월한 힘을 통하여 약자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개인이나 집단은 보다 강한 힘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고 대립하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회적 갈등이나 전쟁이 끊이지 않게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개인이나 집단은 우월한 힘을 가지거나 힘

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과 제도를 통하여 유리한 지위를 지속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경향과 달리 사랑의 실천으로 현실 문제를 극복하고 평화의 세계를 지향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이 가운데 예수와 묵자는 '사랑'을 주장하며 힘을 통한 지배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을 통한 공존과 평화를 위한 가치를 지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본 연구는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와 실천에 대해 비교하고 그 의미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수와 묵자의 사랑은 예수의 경우 아가페이고, 묵자의 경우 겸애이다. 따라서 우리말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은 그 의미와 특징이 다르다.

예수의 사랑은 헌신과 섬김을 강조하는 아가페이다. 아가페는 단순히 좋아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넘어서고 초월하는 사랑이다.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원수라도 사랑해야하는 것이 아가페이다. 이러한 점에서 아가페는 희생과 인내가 요구되고 섬김이 요구되는 것이다.

묵자의 겸애 역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점이 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사랑(自愛)을 하지만 묵자가 말하는 겸애는 서로 사랑하고 평등하게 사랑해야한다.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공격하고 침략하지만, 다른 사람도 평등하게 사랑한다면 침략하거나 빼앗지 않게 된다. 그래서 묵자는 '서로 미워하고 차별하는 교상악(交相惡)'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겸상애(兼相愛)'를 주장하는 것이다.

둘째,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양자 모두 실천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 예수는 아가페를 계명으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였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고 최고의 계명이라고 선언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가페를 계명으로 실천하라고 하였다.

묵자의 겸애 역시 실천이 어렵기 때문에 비판받았다. 이에 대해서 묵자는 논리적 설득을 통해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묵자는 겸애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겸애를 좋아하고, 겸애를 실천하는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선 성인들이 겸애를 실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겸애의 실천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묵자는 하늘의 뜻이 겸애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외적 절대자를 통해 겸애의 정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예수의 아가페와 겸애가 가지는 의미와 시사점은 인간으로 하여금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예수가 살았던 시대는 로마 군대에 의한 평화를 말하는 시대였고, 묵자가 살던 시대는 서로 무력으로 패권을 잡으려고 하던 춘추전국시대였다. 오직 힘과 무력만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되는 시대였다. 그러나 무력과 군대는 억압적이고 일시적인 평화이다. 언제든지 폭력과 전쟁으로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가 주장했던 희생과 섬김의 아가페와 묵자가 제안했던 서로 평등하게 사랑하는 겸애는 진정한 평화와 새로운 세계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 만약 힘과 무력으로 우월한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약육강식과 지배와 억압이 인간 삶을 황폐하기 만들 뿐이다.

인간의 역사는 사회적 힘을 획득하고 우월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향은 개인과 집단과 국가 간의 대결과 갈등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의 아가페와 묵자의 '겸애'는 비록 실천에 어려움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차별 없는 평등한 사랑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인간 역사의 흐름에 새로운 가치를 제안한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성경전서』 개역개정판, 대한성서공회, 2004.
기세춘 역저, 『墨子』, 서울: 바이북스, 2009.

2. 논문

강지연, 「오뢰천의 묵적과 예수 연구-묵자 사상 해석과 기독교의 문제」, 『철학연구』 제124집, 대한철학회논문집, 2012, pp. 1-20.
김보겸, 『요한복음의 아가페(Αγαπη) 모티브 연구』, 호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김영훈, 『「누가복음」에 나타난 아가페(Αγαπη)의 교육적 의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김태수, 「아가페(agaph) 리더십: 한국교회 리더십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기독교적 리더십」, 『복음과 상담』 제24권 2호, 2016.
나종선, 「조선조 유학자들의 묵자 이해에 대한 고찰」, 범한철학회, 『범한철학』 40, 2006, pp. 165-182.
민홍석, 「묵자철학의 핵심처는 어디인가」, 『양명학』제34집, 2013, pp. 149-178.
손영식, 「묵자의 '하느님 뜻'에 근거한 '보편적 사랑' 겸애의 이론(1)」, 동양고전학회, 『東洋古典硏究』 3권 1호, 1994, pp. 669-694.
송기식, 「묵자(墨子)와 Reinhold Niebuhr의 사회사상(社會思想) 비교 연구」, 서울신한대학교 기독교신학연구소, 『神學과 宣敎』 16, 1991, pp. 83-202.
이기동, 「묵자사상의 체계적 이해」,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人文科學』 20권 1호, 1990, pp. 5-26.
이재준, 「묵자의 교육학적 읽기: 유가와 묵가의 대립 구도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8권 3호, 2007. pp. 55-79.
이태승, 『묵가 의리관의 실천적 성격』,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황성규, 「묵자 교육사상의 특징과 의의」, 『도덕윤리과교육』 26, 2008, pp. 165-188.
Anders Nygren. 고구경 역, 『아가페와 에로스』, 고양: 크리스챤 다이제스트, 1998.

3. 단행본

문익환・기세춘・홍근수,『예수와 묵자』, 서울: 바이북스, 2009.
유진 피터슨,『 메시지 신약』, 서울: 도서출판 복 있는 사람, 2011.
한비, 이운구 옮김,『韓非子』「外儲說左」上, 서울: 한길사, 2012

(투고일: 2021. 1. 31 심사완료일: 2021. 3. 19 게재확정일: 2021. 3. 23)

채휘균
소 속: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주 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산 20
전자우편: educhk@hanmail.net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ncept of Love and Practice of Jesus and Mozi

Chae, Hwei-Kyun

This study is a study of Jesus' love and Muzi's Jianai(兼愛). Summarizing the Jesus' love and Muzi's Jianai(兼愛) is as follows:

An important concept in Jesus' teaching is love. The Bible uses two words for love. One is Philos(φιλος), representing brotherhood and friendship. But what Jesus claims is agape. Agape(αχαπη), unlike Philos (φιλος), is devoted and sacrificial love.

The Muzi thought that the world was insecure because he did not love each other and was self-centered. If the world 'loves each other (兼相愛)', it is governed equally, and if it discriminates and hates each other, it becomes confused. To love one another and to discriminate and hate each other are conflicting concepts. Muzi's Jiansangai(兼相愛) does not dis criminate and sang(相) is mutual and bidirectional. Love is to love and to serve. The important thing is to love each other, not to discriminate. If you dis criminate, you will move away from humility.

The meaning of Jesus' love and Muzi's Jianai(兼愛) gives us hope for a new life and a new world. Human history has developed as a tendency to acquire power and seek superiority. This resulted in confrontation and conflict between individuals, groups, and nations. If man pursues only superior power, conflict and oppression will devastate man and the world. However, Jesus' "Agape" and Muzi's Jianai(兼愛) presented the value of mutual service and devoted love. This can be said to offer new hope to human society and history.

Key words : Jesus, Love, Agape, Muzi, Jianai(兼愛), Jiansangai(兼相愛)